



미주한인이민 108주년 ‘미주 한인의 날’

미주지역 한인이민 108주년 이 되는 올해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다채롭다. 먼저 지난 1월 10일(월)과 12일(수), 13일(목)에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인의 날을 기념한 현기식이 있었다. 또한 12일(수) 저녁에는 미주 한인의 날 감사예배를 세계등대교회(담임 이상남 목사)에서 드렸다. 이어 13일(목)에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및 조찬기도회가 가든스윗호텔에서 개최됐으며, 14일(금) 저녁에는 LA총영사 관저에서 기념만찬을, 15일(토)에는 알바인 미주한인의 날 축제 기념식 및 감사예배를 얼바인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

사)에서 드린다. 지난 1월 11일(화) 알바인시 의회와 글랜데일시의회에 이어 13일(목) 세리토스시의회가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가졌으며, 14일(금) LA시의회, 18일(화) 부에나파키시의회에서 각각 선포식을 가진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2005년 미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제정됐으며 한인의 문화와 정신을 미 주류사회에 알리고 선조들이 일궈놓은 업적을 기리며 이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제정된 축제의 날이다. 문의: 323) 732-0700(한인의 날 사무국) (지재일 기자)

아이티 어린이들 희망의 하모니로 LA방문

1월 12일은 아이티 대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원은 약속금액 중 42%만 집행했다는 통계(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 더칠드런)가 보고되는 가운데 약

해 순회공연을 실시한다. 오는 1월 14일(금) LA에 도착하는 아이티 청소년 합창단은 23일까지 순회공연을 하며, 한인들의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

퍼레이드 일정이 확정됐으며, 21일(금) 오후와 23일(주일) 오전과 오후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표세홍 목사(LA교역자협의회 회장)는 “현재 갈스시장, 미주성산교

티 어린이 식사 및 호텔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이티 청소년 합창단 후원 방법으로는 교회초청 순회공연을 지원하거나 공연에 참석하기, 호텔경비와 식사비 대접하기(각 \$10), 선물하기 등이 있다. 아이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약900불에 해당하는 비행기 티켓과 비자서류비를 백삼속 아이티 선교사의 도움으로 마련해 미국 땅을 밟게 됐다. 11차례 아이티를 방문하며 백삼속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다는 전통적 선교사는 “아이티에는 70%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으며, 직업이 있어도 한 달 수입이 약70불이라 미국 땅을 밟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선교사는 “비행기 티켓 이외에 미국 체류비, 숙식비 등은 미주 교계 및 시민들의 지원들로 채워지고 있어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아이티 청소년 합창단 방문 및 공연은 LA교역자협의회, 글로벌비전뱅크, 세계문화스포츠재단, 남가주목사회, 남가주기독교회협의회, 남가주성도단체협의회, 남가주장로협의회, 한인회, 동포재단, 마틴루터킹재단, LA카운티 커미셔너협회 등이 후원한다. 문의: 표세홍 목사 213-248-1143 (지재일 기자)

16일부터 아이티 꿈과 희망의 천사 합창단 순회 공연



지난 12일 아이티 지진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아이티의 최대 역점사업은 이제 콜레라 예방이다. 아이티 지역에서 월드비전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월드비전

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LA지역 교계 및 주요단체들은 아이티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 64명을 초청

제 16일(주일) 오전 11시 미주성산교회(방동섭 목사) 공연, 오후 2시 라틴교회 공연, 19일(수) 오후 라틴오순절교회 공연, 17일(월) 오전 10시 15분 마틴 루터 킹

회, LAPD경찰국장, 세리토스 조재길 시장, 오순절 총회장, LA시의원 버나드박, 마틴루터킹재단, ABC방송국, 브룩헐스트호텔 등의 후원이 약속돼 있다”며 아이

LA 한인타운 ‘직장인들 위한 예배’ 시작된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영혼의 쉼, 직장인들을 위한 목요일 낮 예배가 2월부터 시작된다. 직장

인들을 위한 목요일예배를 기획한 조이헬로섬교회(담임 박광철 목사)는 한인타운 내 직장인들의

밀집지역인 3550 Wilshire Blvd에 ‘JOA Wellness Center(124호)’를 마련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인 예배를 드린다. 2월 3일 목요일 낮 12시~1시

까지 예배드리며, 조이헬로섬교회 박광철 목사가 설교한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점심식사도 제공될 예정이다. 박광철 목사는 “직장인 대부

분이 주일에는 피곤해서 늦잠을 자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많다”며 “주중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와 만남을 통해 영혼의 쉼과 활력을 되찾

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쁜 직장인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자. (박상미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제41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2011년 이취임 감사예배를 가지려 합니다. 귀하를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기 목사 (신임회장) **지용덕 목사** (이임회장)

- 일 시: 2011년 1월 16일 (주일), 오후 4시
- 장 소: **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www.choonghyun.org
- 주 소: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 문 의: (교회) (818)549-9191, (213)255-1725, (323)404-3147

제41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임원명단

회 장: 민종기 목사
수석부회장: 변영익 목사
부 회 장: 강일용 목사, 권영국 목사, 김바울 목사, 김성일 목사, 김한요 목사, 고승희 목사, 박성규 목사, 임규서 목사, 원영호 목사, 이성현 목사, 정수일 목사, 정우성 목사, 지윤성 목사, 진유철 목사, 최병수 목사, 최홍주 목사, 최준호 목사
총 무: 박세현 목사
부 총 무: 김하워드 목사, 심진구 목사
협동총무: 남철우 목사, 김은목 목사, 지역교회협의회 총무단
서 기: 김요섭 목사, 부 서 기: 김병학 목사
회 계: 홍성관 목사, 부 회 계: 이동구 목사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감 사: 정요한 목사, 도은석 목사

특별위원회

회칙수정위원장: 지용덕 목사
이단대책위원장: 이정현 목사
차세대신앙전수준동분부장: 김동환 목사
성지순례위원장: 서병길 목사
종교외교문화협력위원장: 양현숙 목사

사회봉사위원장: 지용덕 목사
한,미교회협력위원장: 송기성 목사
공신백향상위원장: 한기형 목사
교회균형발전위원장: 최희방 목사
미주류사회정책담당위원장: 임해빈 회장

이사회

이 사 장: 손수용 장로
부 이 사 장: 류현수 목사, 이용훈 장로
목사 이사: 김수철 목사, 김재문 목사, 김재연 목사, 김지성 목사, 방동섭 목사, 방수민 목사, 백지영 목사, 송병주 목사, 양수철 목사, 유진소 목사, 이성주 목사, 최철호 목사, 한충호 목사
평신도 이사: 김병호 장로, 김영철 장로, 김해성 장로, 노명수 장로, 류철일 장로, 모종태 장로, 박남수 장로, 박영집 장로, 박홍락 장로, 박찬준 장로, 서양훈 장로, 선원규 장로, 손철 장로, 신홍식 장로, 이성우 장로, 이적재 장로, 이화룡 장로, 임홍호 장로, 장성격 장로, 조선환 장로, 최성근 장로, 최철 장로

분과위원회 *

신학분과위원장: 임현철 목사
교육분과위원장: 오상철 목사
재정분과위원장: 박종갑 장로
평신도분과위원장: 장도원 장로
음악분과위원장: 이종홍 목사
에배분과위원장: 박성근 목사
학예분과위원장: 송정명 목사
국제분과위원장: 서영석 장로
체육분과위원장: 이종주 장로
가정사역분과위원장: 김철민 장로
군선교분과위원장: 이신모 장로
교회공신백향상분과위원장: 미려준분과위원장: 추영욱 목사
의료분과위원장: 김인철 목사
구제분과위원장: 나주목 목사
해외협력분과위원장: 백낙근 목사

고문변호사: 서윤원 장로, 김광성 장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 735-3111
Email: churches3000@gmail.com www.theckc.org

▶ 신원규 목사, “교회 건축보다 선교와 구제의 본질 회복 노력”

삼성장로교회 영혼구원 본질위해 새 비전 선언

“더 이상 건축이나 매입을 일체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임을 실천하는 사역, 그리고 장년 출석 200명을 넘을 경우 각 지역 별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워 성숙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 **성전 건축의 야망으로 무너진 목회, 결국 영혼구원 본질 회복**
이민목회 27년차 삼성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원규 목사의 회복 선언 내용이다. 신원규 목사는 “지나친 교회 성전 건축으로 육체적 건강, 목회자 영성 소진, 힘든 교회 재정 등의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교회 건축 때문에 선교비를 줄이고, 개인의 야망으로 밀어붙인 성전 건축으로 인해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목사는 “기도 중에 ‘너는 누구를 위한 사역자였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건축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던 과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됐다”고 고백했다. 신 목사는 “그제야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는 본질적인 이민목회(비전 Acts 1:8)에 집중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전체 대형교회 성전 건축 비판 아니라, 개인의 경험 회개하며 본질 회복 기대**

지난 1월 7일 삼성장로교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신원규 목사는 “새로운 사역 정관을 공개하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동의를 구했다”며 “모든 내용이 전체 대형교회 성전 건축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

의 경험을 회개하며, 새로운 이민 목회 본질 회복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카본 캐년 로드(Carbon Canyon Rd)에 위치한 삼성장로교회는 1월말까지 예배를 드리며, 교회 성전은 다시 은행에 반납할 예정이다. 2월 6일부터는 라하브라(La Habra)지역에서 교회 건물을 렌트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목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 정립한 사역정관**

“교회 건축이 아니라 성도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사역정관을 삼성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들었다”며 신원규 목사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이민교회 미래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역 정관의 내용은 설립 목적, 구성과 조직, 운영, 재정, 정원 및 교회 분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설립 목적**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지역 교회가 서로 섬기며 연합하며 초대 교회의 모범적 교회상을 회복한다. 본 교회의 목적은 선교와 구제에 있다.

▲ **구성과 조직**
본 교회의 협의회 사역을 위한 의사 결정 및 집행 기관으로 사역 섬김 위원회를 둔다. 사역 섬김 위원회 구성은 각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 1인과 지역교회 시무장로 2인 혹은 제직 2인으로 한다.

▲ **운영**
본 교회는 행정적 규약이 아닌 각 지역교회간의 신뢰와 비전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본 교회에 속



신원규 목사는 현재 삼성장로교회 건물을 은행에 반납하고, 2월부터는 \$5,000 이하의 렌트를 사용하며 선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교회 공동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 교회 연합사역 사무실에서 주2회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교회에 속한 각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는 지체로 흩어진 각 교회를 상호 방문하여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는다.

▲ **재정**
지역교회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의 재정부가 관리하고 매 주일 헌금 총액에서 10%를 본 교회의 공동 사역비로 적립한다.
▲ **정원 및 교회 분할**

본 교회에 속한 지역 교회의 최대 정원은 장년 출석성도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년 출석 교인 150명 이상이 되면 지역교회는 교회 분할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에서 1년내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입 및 탈퇴**
본 교회는 교단의 제약 없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교회가 가입할 수 있다.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지재일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력자 한인 가정에 ESL과정,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아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기술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명씩, 소셜 번호, 워킹퍼미트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력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샌퍼난도밸리교역자협의회(회장 김원락 목사) 신년하례회 및 정기월례회가 지난 11일 벨리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지난 12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원락 목사 회장 취임에배를 겸한 이번 행사에서 이경현 목사(벨리 교협 직전회장)는 “김원락 목사는 특히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라며 “벨리 교협으로 인해 벨리지역 교회들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원락 목사는 “지난 12월 정기총회 당시 2011년 벨리 교협이 부활할 시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음악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자라나는 미래의 2세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시대의 영성 밝히는 청교도 신앙 회복하라”

겠다”고 말한 바 있다. 1부 예배는 유상수 목사(은혜와평강교회)의 기도, 김재연 목사(세계비전교회)의 설교, 김경훈 목사(은퇴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시간 세미나는 ‘청교도 역사와 사상’이란 주제

로 조주호 목사(리포드대학교 총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영국 교회에서 예배시 성경은 감독과 교부들이 독점 강제로 인해 교권을 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된 일 반 신도들은 성경을 전혀 볼 수 없었다”며 “성경이 바르게 강해되지

않는 교회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성경이 교회의 강단에서 멀어질 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방인 모임과 같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위대한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타락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민족운동, 신앙운동”이라며 조주호 목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만 영향을 받았던 칼빈, 츠빙글리, 루터 등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이 시대 영성의 불을 밝히는 목회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지재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만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형소 허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시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신개념 온열매트

크로버 탄소매트

탄소 [Carbon] 함유량?

숯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미래형 소재로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다른 온열매트에 비해 열 효율이 높아 절전형이다.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및 향균,탈취,항습효과가 뛰어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Well Being) 소재이다.

문의전화
Crover Inc
323-588-7277
WWW.CROVERGREEN.COM

QUEEN \$ 349
KING \$ 429

판매처

LA Sweet Dream (213)389-2828 김스전기 (213) 386-4882 정스 백화점 (213) 385-1111 ABC 플라자 (213) 386-1155 헬스코리아 (213)-487-4986 야세마켓 (323)-733-4986 캘러리아	가디나 Marukai (310)660-6300 토렌스 네이버스 (310)326-6666 세리토스 이불타운 (562)402-3737 H Mart 내 산호세 이불나라 (408)834-3004	가든그로브 이불타운 (714)530-6378 아리랑 마켓 옆 샌디에고 이불타운 (656)496-0766 샌디에고 시온마켓 내 애난데일 Spring Water (571)228-2260 아들란타 바이엔조이 (770)-232-7846	시카고 Hi-Mart (773)478-0007 타코마 팔도월드 (253)581-7800 신신백화점(253)582-2975 뉴욕 아사현복(718)886-8106
---	--	--	---

전기선이 없는 건강기능성 매트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매트를 보셨습니까? 이제 그 과학이 기술로 실현 되었습니다. 매트안에 전기선을 걸어내고 그대신 탄소섬유 발열체가 들어가 있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자파 테스트를 통과하여 전자파가 없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전자파 걱정은 이제 그만!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어 더 안심!
꿈의소재 '탄소섬유'가 기존 전기선을 없애고, 품격있는 친환경 소재인 카본 탄소섬유 발열체를 통해 피부에 느끼는 온열효과가 높고 열이 공간으로 고르게 방사되는 복사열 가열방식이어서 안방,침실에 따사로운 온기가 전해집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복사열
카본 탄소섬유 발열체에서 방사되는 열은 전기선의 인위적인 열이 아닌 원적외선 복사열이 발산 되므로 선조들의 따뜻한 온돌방처럼 훈훈한 온기를 깊숙히 느낄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숙면,항균,곰팡이 억제 및 냄새제거에 탁월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탈취기능 (84%), 항균기능 (99%)

세계 최초로 전기 제품중 유일하게 물세탁 (세탁기) 이 가능한 신제품
세계 최초 4개의 발명특허로 이루어낸 탁월한 내구성과 방수절연이 가능한 특수 4중 "안정코팅"으로 세탁 후 건조하여 사용할수 있는 건강기능성 카메트이고,물기있는 곳은 스스로 전원이 차단되므로 감전의 위험이 없고, 완전히 건조 후 전원이 전열되는 시스템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실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침기능
두 사람이 잠을 잘때 자기 체온에 맞는 온도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분리난방 구조로 설계되었으며,한쪽만 사용할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분리구조형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난방1,난방2를 선택하여 누르시고 취침기능 버튼을 누르며 숙면 할수 있는 최적의 온도 35℃ (±2℃)를 유지시켜 줍니다. **난방 기능이 10시간 이상 지속될 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Crover' 는 'Cross' 와 'Clover' 의 합성어로 십자가의 행복을 의미 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남가주고신목사회 신년하례회 열려

남가주고신목사회 신년하례회 및 예배가 지난 10일 새창조교회(담임 정병재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지역 고신 목회자 및 사모 20여명 못했던 과거가 없는지 돌아본다"며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가는 목회자는 새롭게 개척한 새인약교회(Cypress지역) 유하기 목사, 지난해 한국에 들어가 다민족선교를 시작한 최수일 목사, C국에서 선교하



남가주고신목사회 신년하례회 및 예배가 10일 새창조교회에서 열렸다. ©박상미 기자

신년예배 드리고 웃놀이하며 목회자간 교제

이 모인 이날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년하례 예배에서 설교한 정병재 목사는(본문 대 상 10:13-14) "사울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이도 목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습이나,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는 J선교사 등의 간증 및 선교보고의 시간도 가졌다. 이후 이들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남가주지역 고신 목회자 및 사모들은 예배드리고, 식사와 웃놀이를 하며 교제한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남가주지역 고신목사회는 10여 년 전, 고신 목회자들의 친목회로 설립됐다. (박상미 기자)



남침례교회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신규원들.

SBC 남가주한인교회협 신임 회장에 한충호 목사선임

"협의회 소속 3개 지방회 화합에 힘쓰겠다"

남침례교회(SBC)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제30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LA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남침례교회 남가주 한인교회 협의회는 총 100개 교회 목회자 110명, 기관사역동역자 13명, 은퇴목회자 34명 중 이날 회원 67명이 참석해 총회가 진행됐다. 신임원 선출시간에는 지난 2008년 제27회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한충호 목사(임마누엘한인침례교회)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 회원들의 박수로 회장에 추대됐다. 한 목사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남침례교회 남가주한인교회협의회 소속 LA지방회, OC지방회, 코이노니아지방회가 더 발전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

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직전회장 조다윗 목사(샌디에고제일침례교회)는 "2010년 남가주 협의회 회원 목회자들이 보내 주신 기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협의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교회마다 부흥하고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정기총회 1부 예배는 신종은 목사(풀러튼제일교회)의 사모로 진행됐으며, 이상래 목사(코이노니아 지방회 회장)의 기도, 조다윗 목사의 설교, 박은식 목사(은퇴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중에는 감바울 목사, 박준걸 변호사에게 후원 감사패를 증정했다. (지재일 기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남가주한인기독실업인연합회(CBMC, 회장 황선철)는 지난 8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신년하례 조찬모임을 가졌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를 부르며 시작된 조찬 모임 가운데서는 2011년 비즈니스 선교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올해 10월 LA에서 열릴 북미주 한인 CBMC대회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인사말을 전한 황선철 회장은 "올해 개최되는 한인 CBMC대회를 통해 비즈니스 선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며 "각각의 CBMC 회원들이 선교 현장에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종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는 '큰 비 소리가 있다(열왕기상 18:41-4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민 목사는 "이스라엘 왕국의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시기,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 큰 비가 내렸다"며 "이는 우상숭배를 청산하고 엘리야처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축복

이 임한다. CBMC 회원들의 가정과 교회,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 기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홍콩에서는 제2회 세계 한인 CBMC 대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연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10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는 웨스턴호텔에서 제16차 로스앤젤레스 북미주 한인 CBMC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C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해외여행사 응급비용지원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풀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배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미주 제1기 어? 성경이 읽어지네!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은 50만 명 넘게 읽힌 책입니다. 이제는 이매실 사모 혼자서 다 강의하기가 벅할 만큼 현상이 넘습니다! 당신도 강사가 되십시오!

이매실 사모님 프로필
-이순은 목사(전, 시카고 그리스도교회 담임)
-베링랜드 침례교회 담임, (현 서울 대교교회 담임)의 아내
-성서 성경사역원 원장
-글로벌 여류 대표
-저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 [어? 히브리어 들어가네!], [구약읽기 네비게이션 48] 등 다수

현재 한국 2010학년도 전강스쿨에서 215명의 학생이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에서도 2011학년도 전강스쿨이 시작됩니다. **미주 최초로 시카고와 LA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사역할 필드는 엄청나게 열려있습니다. 당신을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강사로 초청합니다. 당신의 생애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원서접수, 입학시험 및 등록 : 2011년 1월 12일~2월 12일 (www.ahaja.org)
지원자격 : 이매실 사모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수강 (CD, 인터넷도 가함)한 후 인도자컨퍼런스 수강한 자(미수강자도 조건부 입학됨)
수업기간 : 시카고 2011년 2월 13일(주일) 오후 5시 입학식~7월30일 남가주 2011년 2월 21일(월) 오전 9시 입학식~7월23일
수업시간 및 장소 : 시카고 오후 7시~11시 헬로섬 교회(김형근 목사) 남가주 오전 9시~오후4시 은혜한인 교회(한기홍 목사)
회비 : 전학기 월 \$200.00X6 (\$1,200.00)

<커리큘럼>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초빙교수 강의는 사이버로 진행 됩니다.

시카고 일정	남가주 일정	내 용
2월 13-18일	2월 21-24일	입학식 및 수업 / 이매실 사모 직강 (OTEL 1-6, OTML 1-6)
2월 20-24일	2월 25-27일	실제 체험성경강 훈련 -> 전문강사와 하는 인터넷 (구약 1-6과)
3월 13-18일	3월 7-11일	이매실 사모 직강 (OTEL 7~12, OTML 7~12)
3월 18일-4월	3월 12일-4월	<실제성 훈련, OTEL & OTML 강의 습득, 초빙교수 강의, Paper, Reading, 중간고사>
5월 22-27일	5월 2~6일 9-11일	이매실 사모 직강 (수업진행 NTEL 1-12, NTML 1-12 완성)
6월	6월	<실제성 훈련, NTEL & NTML 강의 습득, 초빙교수 강의, Paper, Reading, 졸업시험 & 논문>
7월 24-30일	7월 17-23일	마무리 강의 코칭 / MT 및 졸업식

•문의전화 : 미주본부 847-296-4555 (장승호 목사) / 시카고 410-978-8882 (강신선 간사) 남가주 714-743-3807 (이진환 목사)

성경이 읽히는 Life Place Bible Ministries
미주본부 411 Kingston Ct. MI Prospect, IL 60056
www.ahaja.org email : kksinsan@hanmail.net

교회의 진단과 치료 ‘메디컬 모델’ 논하다



지난 3일-7일까지 5일간 열린 박사과정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MBTS 박사과정 목회자들.

죄인의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인지 문제도 많다. 교회의 문제를 일종의 ‘병’으로 인식하고 성경말씀에 기초해 진단하고 치료방안까지 제시하는 ‘메디컬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한국어 박사과정을 개설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매우 중요하다”며 “성경이 가르치는 치료방법과 치료원리를 교육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MBTS 박사과정의 한 목사는 “예배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며 “몸을 헤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

말씀”이라며 “말씀에 전착하여 깊이를 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이 일어나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인테그리티(integrity)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TS는 한국어 박사과정 외에, 신학석사학위를 100%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신학석사학위의 한국어권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MBTS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교류가 교실 수업에 비해 우수하다는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율적인 시간 계획과 본인의 선호에 따라 수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교수들과 활발히 토론할 수 있으며, 매 수업시간 제출되는 퀴즈로 당일의 수업내용을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교(MBTS)는 복음적이며 선교에 적극적인 남침례교단 산하 6개의 신학교육 기관 중 하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녀 사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수행하도록 성경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MBTS의 핵심가치는 ‘진리-앎’, ‘헌신-됨’, ‘전도-삶’으로써 진리추구의 학업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려 깊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홈페이지: www.mbts.edu/online
한국어: www.mbtsc.org
이메일: kmats@mbts.edu(한국어 온라인 신학석사 담당 디렉터)
문의: 816)414-3776
(박삼미 기자)

한국어 박사과정 개설한 MBTS, 이민교회 문제와 해법 모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BTS)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미라클랜드 침례교회(담임 이상래 목사)에서 박사과정을 수료중인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민교회를 위한 ‘진단과 치료’라는 ‘메디컬 모델’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디컬 모델이란 사건과 현상을 진단과 치료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진단과 치료의 개념을 교회의 상황에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를 다루었다. 예루살렘교회, 데살로니가교회,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에베소교회 등에서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바울의 기록을 연구하고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치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교회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모색했다.

강사로 나선 MBTS 박사과정 담당 디렉터 최락준 교수는 “교회의 진단과 치료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은 다른 지식이나 방법보다

님을 설교나 티칭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신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자주 모이는 것’과 ‘티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박사과정 목회자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며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며, 한 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 동기부여를 위해 ‘선교’를 꼽았다. 선교지에서 성도 자신이 받은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목사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다”며 “여기서 첫사랑은 단순한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첫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MBTS 박사과정의 이장렬 교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성한미교회 장로 권사 취임예배 드려

나성한미교회(담임 전병주 목사)가 9일(주일) 오후 장로 임직 및 장로, 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장로로 권혁민, 김경무, 이찬용 등이며, 시무권사로 김순보, 김영숙, 박인애, 박혜경, 이범명, 이인숙 등이 취임했다.

취임예배에서 설교(본문 요21:15-23)한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며 “이제 주님이 아니라면 한 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고백이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된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우리에게 위기

는 바로 옆 사람이 은혜 받을 때”라며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직분자들이 되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에서 축사한 김형구 목사(하늘샘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다의

분”이라고 권면하기도 했다.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 칭찬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나성한미교회 장로 권사 취임예배

빈자리를 초대교회에서 다시 채우고 일꾼을 세웠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며 “일꾼이 세워진 한미교회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내운 목사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명예가 아닌 신

했다. 나성한미교회는 이날 9명의 임직자들에게 임직패를 증정했으며, 은퇴권사 2명(박현렌, 이상옥)과 명예권사 10명(김금순, 김기숙, 김덕해, 박기임, 박남순, 윤금임, 이창희, 정해임, 조진숙, 한민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삼미 기자)

‘복음과 의료기술로 비상하는 비전 공동체’

제121회 미주 기독교한의사협회(이사장 노영조, 회장 오덕상)

1월 정기예배 및 신규 임원 이취임식이 지난 9일 생수의강교회에서 열렸다. 올해 미주 기독교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오덕상 장로(라파선교회 회장)는 “한의학 학술대회를 열어 협회 회원

들의 실력을 향상하고, 예배하는 협회, 지역과 해외선교에 주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사를 전한 거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은 “회원 한의사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여 전도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기독교한의사협회와 거주한의사협회가 형제처럼 복음 안에서 협력해나갈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유 회장은 한의사 협회 회원 배가 운동을 전개할 것과 한방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기독교한인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121회 미주 기독교한의사 협회 단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유도열 회장, 왼쪽에서 여섯번째 오덕상 회장).

1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강신욱 목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며 구속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섬김으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한의사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기독교한의사협회 213)590-9013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신년메시지 ●



회장 장석진 목사

희망찬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201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주지역 4천여 교회와 각 지역 교회협의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를 축복하사 각 기업과 산업체,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에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나며, 한인 2세들의 활동이 미주사회에서 더욱 크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타민족들과의 교류와 협력, 화합을 통해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도발로 인한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미주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는 미주 한인 동포들을 섬기는 자리로 찾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청교도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교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인 2세 교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발굴하여 한민족의 세계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나기는데 일부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미기총은 명실공히 우리 미주한인 교회들의 부흥과 사명을 위해, 동포사회의 권익과 한인주류사회의 신장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11년 새해를 시작하며 미주한인교회와 동포사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강단 26]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 새벽예배

천로역정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이번 한해도 성실하게 살자는 뜻으로 특별새벽기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본문: 수 1장 7~8절> 신년 두주간의 새벽기도에서 천로역정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편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미국 교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는 무서운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지만 무서워서 망설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을 담대히 한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수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담임 오세호 목사)는 조금 특별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천로역정'을 성경본문과 함께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 오세호 목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전쟁, 자연재해, 경제불황, 한국의 불안한 정세 등...이런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죠.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천로역정의 내용을 교훈삼아서 이번 한해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롭다는 것에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테러, 전

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천로역정'을 성경본문과 함께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라면 한번쯤 들어보거나 읽어봤을 '천로역정'을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 박동현 장로는 "그 옛날 읽어봤던 책을 오늘날에 맞게 잘 설명해 주시니 큰 은혜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세호牧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천로역정이지 않겠는가"라며 "책

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지식에 의지합니다. 등장 도우미 되고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읍시다.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고 올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험난함에 두려워 할 필요도,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여 나아가 갈 때 형통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지나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갑니다. 미궁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지난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 과정 중 간에는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움이나 겁쟁이, 불신도 나옵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헤이해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길을 가봤자 고생뿐이라고 방해하기도 하지만 크리



오세호 목사

(박상미 기자)

남가주헬로쉽교회, 3세대가 함께 하는 'CG' 예배



90년대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을 시도했던 2세대들이 한인교회로 복귀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를 발표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피터 차 교수는 "2세대들이 1세 교회로 돌아오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 삼세대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년 특새기간과 CG 예배가 겹친 지난 토요일(8일)은 삼 세대가 모여 영어와 한국말로 함께 예배드렸다. 신년 첫 CG예배는 2세 선교사인 다니엘 김(Daniel Kim) 멕시코 선교사가 설교했으며 2세 NFC밴드가 찬양을 인도했다. 김 선교사는 "일상을 반복하며 사는 평범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다. CG 예배 후 "2세대와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박해성 목사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보다 한국인의 훌륭한 영성 등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남가주헬로쉽교회는 새벽기도회를 더욱 성실히 지킬 뿐만 아니라 CG예배도 꾸준히 드릴 계획이다.

(박상미 기자)

2세대교육에 대한 중요한 토양 제공.. 신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특새

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라고 했다. 남가주헬로쉽교회(담임 박해성 목사)는 이 같은 한인교회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삼 세대가 함께 하는 '크로스 제너레이션 워십(Cross Generation Worship, 이하 CG)'을 드리고 있다. 이 예

도에서 '주여'를 외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의 좋은 추억을 심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남가주헬로쉽교회는 '풍성한 십(Cross Generation Worship, 이하 CG)'을 드리고 있다. 이 예

호남지역 기독교 명문사학 '매산학교' 동문회 열려



매산중고등학교 동문회.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명문학교인 매산중·고등학교 동문회가 지난 8일 JJ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남가주 지역에 살고 있는 매산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은, 총회 및 신년하례회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매산동문회 2011년 회장은 김형구 목사(선교사)로 정했으며, 참석자 모두의 박수로 회장을 추대했다.

기독교 명문사학 매산중·고등학교는 1910년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으며, 그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이곳 남가주 지역에도 다수의 동문 및 목회자들이 있다.

(지재일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 가족초청 \$190
- 영주권 수속 \$600
- 이름변경 \$290
- 시민권 수속 \$100
- 공증 \$10

20년을 길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번역,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본드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코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Certificate Program for Immigrant Church Family Ministry

이민 교회를 위한 가정사역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소중하고, 시급한 가정 목회 현장, 그 배움의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Course Title-과목	Professor-교수
1. Biblical Foundation of Family Ministry 가정사역의 성서적 기초	Sang Meyng Lee, Ph.D. 미주장신 교수
2. Pre-Marital Counseling 결혼 예비 상담	Peter Kang, Ph.D. 풀러 선교대학원 겸임교수 바인 대학교 초빙교수 ANC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목사
3. Introduction to Immigrant Family Ministry 이민 가정사역 개론	Christina Kang, Ph.D. 풀러 선교대학원 겸임교수 ANC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목사
특 강 - 이민 교회의 가정사역	Cameron Lee, Ph.D. 풀러 심리대학원 교수

- Intensive Course : 3주간 수업, 2월 7일-26일 / 월요일-금요일: 오후7:00-10:00, 토요일: 오전 8:00-오후6:00
- 장 소 : 659 S. Westmoreland Av. #A, L.A., CA 9005 (미주성문 교회당, 원서길, 이태리양복점 2층)
- 등록 마감 : 2011년 2월 4일(금) 입학원서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 2학기 : 2011년 7월 18-8월 6일 (제2학기 수업을 마친 후 수수료 기행: 8월 6일)

- 입학자격** 교역자 혹은 평신도(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서류 심사
- 특기사항** ① 1, 2학기를 수강할 경우 본교 Certificate를 취득하여, 교회의 가정 사역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 ② 본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대학교 M.A. & M.Miss. 과정에 편입 시 학점을 인정 받습니다.
- ③ 1과목 3학점으로, 과목당 \$500,00(총 3과목 등록금, \$1,500,00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입학금, \$50,00
- ④ 입학금 및 등록금은 Check 혹은 은행구좌로 납입합니다. 한미은행 500-134100 Vine University Check, Vine University P.O.Box 7263 Torrance, CA 90504



바인 선교 대학교

14253 Erwin St, Van Nuys CA 91401 Tel. (310) 991-4733 / (310) 212-7481
flisp2@hotmail.com / cmpark@vine.ac / www.vine.ac
Family Ministry 원장, Christina Kang, Ph.D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친후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월 1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역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청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Certificate Program for Immigrant Church Family Ministry

이민 교회를 위한 가정사역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소중하고, 시급한 가정 목회 현장, 그 배움의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Course Title-과목	Professor-교수
1. Biblical Foundation of Family Ministry 가정사역의 성서적 기초	Sang Meyng Lee, Ph.D. 미주장신 교수
2. Pre-Marital Counseling 결혼 예비 상담	Peter Kang, Ph.D. 풀러 선교대학원 겸임교수 바인 대학교 초빙교수 ANC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목사
3. Introduction to Immigrant Family Ministry 이민 가정사역 개론	Christina Kang, Ph.D. 풀러 선교대학원 겸임교수 ANC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목사
특 강 - 이민 교회의 가정사역	Cameron Lee, Ph.D. 풀러 심리대학원 교수

- Intensive Course : 3주간 수업, 2월 7일-26일 / 월요일-금요일: 오후7:00-10:00, 토요일: 오전 8:00-오후6:00
- 장 소 : 659 S. Westmoreland Av. #A, L.A., CA 9005 (미주성문 교회당, 원서길, 이태리양복점 2층)
- 등록 마감 : 2011년 2월 4일(금) 입학원서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 2학기 : 2011년 7월 18-8월 6일 (제2학기 수업을 마친 후 수수료 기행: 8월 6일)

- 입학자격** 교역자 혹은 평신도(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서류 심사
- 특기사항** ① 1, 2학기를 수강할 경우 본교 Certificate를 취득하여, 교회의 가정 사역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 ② 본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대학교 M.A. & M.Miss. 과정에 편입 시 학점을 인정 받습니다.
- ③ 1과목 3학점으로, 과목당 \$500,00(총 3과목 등록금, \$1,500,00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입학금, \$50,00
- ④ 입학금 및 등록금은 Check 혹은 은행구좌로 납입합니다. 한미은행 500-134100 Vine University Check, Vine University P.O.Box 7263 Torrance, CA 90504



바인 선교 대학교

14253 Erwin St, Van Nuys CA 91401 Tel. (310) 991-4733 / (310) 212-7481
flisp2@hotmail.com / cmpark@vine.ac / www.vine.ac
Family Ministry 원장, Christina Kang, Ph.D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친후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월 1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역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청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대지진 1년 후, '잊지마요, 아이티' 캠페인

[아이티대지진 1년]

잊혀져가는 '진흙쿠키' 최빈국 아이티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에서는 아이티 대지진 1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일대일 결연 후원자들을 찾기 위한 '잊지마요 아이티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1년 1월 현재 한국컴패션을 통해 2300여명의 후원자들이 2500여명의 어린이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이들의 양육비로 매월 4만 5천원을 보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컴패션 후원국 11개국을 모두 합치면 6만 6549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한국컴패션은 그러나 1년 전 대지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어린이 7백명에 대한 후원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진 직후 일대일 후원자들이 급증했지만, 현지 어린이들을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어린이센터에 등록하는 일조차 어려워 결연을 많이 맺어주지 못했다



주영훈-이윤미 부부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티 어린이 니키아. 지진 당시 생사가 모연해 이들 부부는 애가 타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한국컴패션 제공

고 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이티를 돕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결연 후원을 통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 후원금은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식사와 영양공급, 정규 교육, 사회·정서교육 등의 양육비용으로 사용된다. 결연 후원자들은 어린이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들과 가족의 희노애락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함께할 수

있다. 결연 후원이야말로 한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일이다. 컴패션 측은 "어린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면 그 어린이가 아이티를 일으킬 인재로 자라, 다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결연 후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대일 결연후원 신청은 한국컴패션 사무실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한 사람이 여러 어린이를 후원하는 경우도 가능하

다. 한국컴패션 관계자는 "한국은 컴패션 후원국들 11곳 중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발전한 최초 사례인데다 후원 규모도 전체 중 세번째로 커져 전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두 달간 어린이 7백명의 후원자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후원문의: 한국컴패션 (www.compassion.or.kr)

(이대웅 기자)

무너진 건물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들

[아이티대지진 1년] 소녀 위니와 앙드리세

아이티 대지진 1년째, 잔해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SC)이 이들의 사연을 모아 보내왔다.

▶ 기적의 소녀, 위니(Winnie)

2010년 1월 15일 금요일 오후, 지진이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한 지 3일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한 여자 아기가 구출됐다. 2살이 채 안된 위니는 SC 사무실 근처에서 촬영하던 호주 취재진 도움으로 구출됐다. SC 의료진은 아기가 탈수 증상을 보

을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하며,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위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 앙드리세(Andrise)의 이야기

앙드리세는 유례없는 지진으로 집과 친척들을 잃었다. 앙드리세와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는 수백 개의 임시 텐트 중 하나이며, 텐트에서 생활중인 다른 가족들처럼 비로 인한 여러 위험들에 노출돼 있다.

10월 초 앙드리세는 지진 후 처음으로 학교에 돌아갔다. 이제 5학년이 된 앙드리세는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기적의 소녀 위니를 돌보는 장면. ©Kate Conrardt,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위니의 부모는 불행히도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사망했고, 삼촌이 위니를 데리러 왔다.

8개월이 지난 후 위니의 삼촌은 "위니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도 조금 할 줄 알고, 먹

우수한 학생 중 하나라고 자랑한다. 그녀는 의사가 되려는 꿈도 갖고 있다. "저는 과학 시간을 좋아해요. 저는 의사가 하는 일이 좋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이대웅 기자)

[아이티대지진 1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

12일은 아이티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규모 7.0의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는 그러나 원조금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이하 SC)에 따르면 지원을 약속한 24개국은 전체 약속 금액인 57억 5천만달러의 42%만을 내놓았다. SC는 "아이티 재건을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들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아이티의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SC는 아이티 강진 직후 긴급구호 현장에 뛰어들어 1년간 5200만달러로 어린이 50만명을 포함



1년 전 피해 현장에서 "우리가 모두 죽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하는 소녀 앙드리세의 모습. ©Collin Crowley,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사회, 아이티 지원 약속금액 중 42%만 집행

한 87만 9천여명을 도왔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진 피해지역에 의료시설 80곳을 열어 16만 5천여명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고, 23만여명은 영양을 보충했다. 또 지진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추적 네트워크

(Family Tracing Network)' 사업으로 1135명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아이티의 앞길은 험난하다. 130만여명은 아직도 임시 텐트에서 생활 중이고, 콜레라가 창궐해 또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콜레라는 아이티 지역에서 1960

년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지진 이후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콜레라로 현재까지 2120명이 사망했고,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65만명이 감염됐다. 더구나 높은 인구밀도와 비위생적 생활 환경으로 콜레라를 비롯한 질병 확산 가능성은 더 높은 상황이다. SC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40만명 이상이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SC는 '더 나은 미래 재건'으로 이름붙인 장기 긴급구호 전략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구호 및 복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2억달러 규모의 추가 후원금 모집도 계획 중이다.

(이대웅 기자)

LA사랑의교회가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9시 50분,
(3부) 정오 12시, (EM) 오후 2시,
(대학청년부) 오후 2시 22분
교육부 주일예배는 2,3부시간에 드립니다.

새벽예배 (월) 새벽 5:25 (토) 새벽 6:20
사랑토요(한글)학교 (토) 오전 9:20
청소년대안학교 (16-24세)
고등학교 졸업장, GED

Tel 213.386.2233
www.LAsarang.com

담임목사 김기섭

한인타운 6가와 La Fayette Park코너 (500여대 동시주차가능)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400 LA, CA 90057

유니온교회 Union Evangelical Church

.....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담임 : 문병용 목사

주일예배

1부 전통예배 오전 8:00 3부 말씀예배 오전 10:50
2부 영어예배 오전 9:3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Tel. 626-858-8300 http://www.unionch.org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AD)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란다’

이성철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몸을 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자기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수리는 자기 깃털이 모두 빠지는 순간 태양을 바라보

고 생각했다”고 말한 이 목사는 “그런 내게 한번은 선배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목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해줬다. 사실 나는 이전에는 성령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설교와 행정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성철 목사는 “그때부터 바로

작했다는 이성철 목사는 “주위의 기도하는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성령의 인도함과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회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다 말하기 어렵다는 이성



뉴라이프교회 2011년도 신년축복부흥성회가 7일(금)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영연합감리교회) 설교로 진행됐다.

또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보게 된다. 우리 굳어버린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 그때서야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성철 목사는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당하셔도 누구도 분노하거나 증오도 없고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부드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쉽게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질 받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성령충만”이라며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라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이성철 목사, 2011 뉴라이프교회 신년축복부흥성회서 설교

며 올라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아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어 가는 삶이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10년 전에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50명에서 2년 후에 80명이 됐다. 헌금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 후에는 교인이 늘지도 않고 성도들이 생각대로 잘 이끌려오지도 않았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나의 한계라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시작했다. 11시부터 모여 새벽 2시까지 금요기도회를 했다. 교인 12명이 모인 가운데 주여 삼창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새벽 3시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힘없이 헤어졌다. 집에 오니, 사모가 쳐녀때 받은 방언이 지금 터졌다고 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후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성령에 대해 설교하기 시

절 목사는 “성령은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항상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성령이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을 장악하게 만드시도록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를 언급했다.

이성철 목사는 “성령에 의해 진리를 알게 된다. 성령의 속한 사람의 증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일년 전에 만난 예수님과 지금 알게 된 예수님이 다르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사

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와 이십년 이상 오래살아보면서 사람말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잘 알게 됐다. 하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리 오래 동거해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사

월드미션프론티어, 2011년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 평욱 선교사)는 2011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먼저 22일 오전 7

터 어린이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에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비전

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30명의 유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 학비, 생활비 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김평욱 선교사는 2월 중에 아프리카를 방문해 브룬디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고 콩고 및 우간다 선교지를 방문해 사역과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선교편지를 통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기도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중보기도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린다”며 “지원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브룬디 복음화 대성회, 비전2012 아프리카 선교센터 건립 추진

시 30분에 크리스찬라이프주최로 ‘조국과 세계선교를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가 열린다. 아프리카 선교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브룬디 복음화 대성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주지역과 한국의 한인 성도들이 브룬디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경비를 위해, 그리고 브룬디 대통령부

2012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선교센터 건축사역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현재 건축이 계속 진행돼 완공돼야할 선교센터는 우간다 Nsangi center, Tanzania Bukoba Center, Rwanda Kagugu center, Rwnada Kayonza Center, Rwanda Cyangugi Center 등이다. 또한, 한국 유학생들의 학업과 학비를 위해 한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

특별새벽기도로 여는 2011년 뉴비전교회 새벽예배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는 지난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6일간의 특별새벽기도 시간을 으로 2011년을 시작했다. 이진수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로 설교하였으며 매일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영어, 한어부가 합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여 이중언어로 예배를 인도하는비전예배로 영어에서

노년층까지 600여명 가까이 참여하여 3대가 한 마음으로 찬양, 기도, 말씀의 예배를 드렸다.

특히 주중에는 각 마을별로 안수기도를 받았고 토요일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안수기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수목사는 “이 비전예배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신들이 그 후손에게 가르쳐줄수 있는 귀한 예배의 모습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

다”며, “앞으로 올 가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비전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자녀들도 부모세대와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부모의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고 전했다. 영어권교인들도 “새벽기도는 우리 한국교회만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어권에서도 계속 이 귀한 축복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형진 기자〉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택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몰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중국대륙을 휘감는 성령행진” 출판 감사예배에 초대합니다

2011년 신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신묘년의 축복, 지혜의 영기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박동입니다. 그 중에 문서선교는 사역방향과 책략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주요사역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300여 쪽의 새 책 ‘중국대륙을 휘감는 성령행진’은 최민 선교사가 2년여 간 중국대륙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보고 쓴 89편의 생생한 칼럼들과 직접 찍은 현장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협의회(KWMC)의 이승중 의장은 “이 책은 본격적인 중국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한 선교 신학적 입문서”라고 말했고 세계 기독교 언론협회장 조명환 목사는 “언론인 출신다운 예리함과 섬세한 시각이 번뜩이는 선교론 적 책”이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저자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1년 1월 21일(금) 저녁 6시

장소 월드 미션 대학교 강당 (5가와 샤토길 동남쪽 코너 6층-중국 영사관 맞은편)

- 1층파킹장에 파킹하시고 저녁식사는 6층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출판기념회문의전화: 연락처는 (213) 505-5202(최민 목사)

설교 차현회 목사 (세계 웨슬리안교회 회장)

설교 : 차현회 목사
(세계 웨슬리안교회 회장)

저자 : 최민 목사

주최: GMCC 선교회 (회장: 성형철), 크리스천 뉴스위크 (발행인: 조명환)
후원: 여개동무사역원 (대표: 이승중)

교협, 신년 하례회로 2011년 힘차게 시작

▶ 1백여 교회 4백여명 참석

제37기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이하 뉴욕 교협)교협이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힘차게 2011년을 시작했다.

1월 10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에는 1백여개 교회 4백여명의 목회자 및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원기 목사는 “동포 사회의 영적 지주인 교회들의 협의회인 교협은 한인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2011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길 기원했다.

하용화 한인회장은 “한인 사회를 계도해나가는 교협이 되달라”고 축사했다. 김용익 목사(뉴욕목사회 회장)는 “이 자리를 위해 쏟았던 수고가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는다.”며 “뉴욕 교회 전체가 협력해 선을 이루어 힘차게 행진하는 교협이 되길 기원한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만나는 날 칭찬받는 교협이 될 줄로 믿는다.”고 축사했다.

이날 뉴욕 교협은 방직자 목사(효신장로교회 원로)에게 2011

년 목회자 공로상을, 임선숙 회장(우리서로잡은손 회장)에게 2011년 평신도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브라이언 매과이어(109경찰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이웃사랑실천모금 전달식을 갖고 뉴욕밀알, 코코 장애아동센터, 뉴욕농아인교회, 무지개집 등 10개 단체에 성금을 전달했다. 1부 예배는 최운돈 목사(역사자료분과)의 인도로, 2부 하례 및 만찬은 이희선 목사(선교분과)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담임)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창 24:31-35)’ 설교를 전했다. 박 목사는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사명을 다하면서 신분을 잃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뉴욕 교회와 동포사회를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장영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는 이종명 목사(교협 부회장)의 기도로 끝났다. 뉴욕 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2011년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월 10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협은 이날 2011년 수첩을 발간하고 배부했다. 2월 7-8일에는 홀리스 선교대회를, 3월에는 삼일절 기념 및 웅변대회를 개최한다. 4월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청소년 농구대회를, 5월에는 영적각성집회, 연합체육대회,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및 지도자 컨퍼런스

준비기대회(5, 6월 2회)를 갖는다. 9월 9-11일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12-15일에는 뉴욕 교회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장애우의 밤 행사도 갖는다. 10월에는 정기총회를 갖는 것으로 올 회기를 마감할 예정이다.

(윤주이 기자)

미국장로교 수도노회 첫 한인여성 노회장

위튼 커뮤니티교회 영어권 목회자 황에나 목사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소재 위튼 커뮤니티교회의 영어권 목회자인 황에나 목사가 지난 1월 8일 미국장로교(PCUSA) 수도노회(미국노회) 노회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한인 여성 목회자로는 최초로 미국장로교 수도노회 부노회장에 취임했던 황 목사는 노회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노회장직을 승계 받으면서 한인 여성 최초 노회장이 됐다.

미국장로교 수도노회장은 과거 베데스다교회의 김용창 장로와 벨츠빌장로교회의 조현정 목사가 역임한 바 있다.

황에나 목사는 1994년 메릴랜드대(UMCP) 칼리지파에서 예술과 영문학을 전공한 뒤 프린스턴신학대와 루이빌 장로교 신

학대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위튼 커뮤니티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해오다 2007년 6월 목사안수를 받았다.

미국장로교 수도노회에는 6개의 한인교회를 포함해 12개의 소수 민족 교회가 등록돼 있으며, 총 116개의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위튼 커뮤니티교회(담임 변철 목사)에서 열린 취임 예배에서 성찬식과 축도를 집전한 황 목사는 “노회장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교인 위튼커뮤니티교회의 도움이 컸다”며 “앞으로 한인 교회 뿐 아니라 라티노교회 등 소수민족의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 목사는 “원래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다른 여성 목회자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요한 기자)



황에나 목사와 가족들. ©워싱턴 한국일보



비행기로 가지 않아도 땅끝 갈 수 있는 곳, 뉴욕

지난해 12월 뉴욕교회(담임 김은철 목사) 다민족 영어예배부를 처음 방문한 중국인 성도는 남편이 교회로 그를 인도했다. 남편은 뉴욕교회를 13년째 다니는 한국인이다. 부부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런 부부에게 다민족 영어예배부는 안성맞춤의 동지였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늦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I'm slow. So I need your help)”하는 그녀에게 유대인 할머니 한 명은 “나는 74세”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 반가움을 표했다.

뉴욕교회 다민족 영어예배부는 특별한 EM이다. EM이지만 한국인 또는 청년만 있는 EM이 아니다. 한국인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칸까지, 청년부터 94세 노인까지 같이 예배하고 교제한다.

뉴욕교회 영어예배부는 2000년 한인 2세대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회중의 대부분이 한인 1세, 2세 청년들이어서 청년부로서의 역할만 했다. 외국인 회중은 국제결혼한 교인의 가족 또는 친구였던 2-3명뿐이었다. 그러다 2008년 초 영어예배부에서 다민족 영어예배부(정식 명칭: Crossroad International

English Ministry)가 나누어져 영어예배부는 한어권 중심으로, 다민족 영어예배부는 영어권 중심으로 재편됐다.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젊은 한어권 청년과 유학생들을 떼어 놓고 보니 2-3명의 외국인 멤버와 소수 장년층만 남은 상황이였다. 나갈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흩어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남은 멤버들은 기도하며 지역 선교에 초점을 맞춰 방향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교회 선교부에서 일 년에 한번 실시하는 스페니쉬 노동자 초청 잔치 등을 통해 몇 명의 스페니쉬 교우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 뒤로 3년 후 한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 필리핀, 영국, 베네수엘

라, 페루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매주 50-60명가량 모이기에 이르렀다.

근처에 사는 주민과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가장 큰 매개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교회 코너에 걸려 있던 작은 현수막이었다. 영어예배부 안내 현수막을 보고 오게 된 회중들이 60% 정도였다.

뉴욕은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특수한 곳이다. 400개 민족이 모여 187개의 언어를 쓰며 사는 뉴욕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 끝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뉴욕교회 다민족 영어예배부는 교회 가까이 사는 많은 종족을 전도하는 것도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오상아 기자)

목회자 사모 위로의 밤

남가주 한인목사회는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모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환을 같이 나누고자 다음과 같이 목회자 사모 위로의 밤을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6시
 ◇ 장소 : 만리장성 989 S. Dewey Ave. LA CA 90006 (Olympic + Dewey)
 ◇ 대상 : 미자립교회 사모님 우선, 선착순 100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문의 : 박효우목사 213-503-3355 김순옥사모 714-392-9578

* 2010사랑의편지쓰기 운동 후원회 주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지면을 통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
 회비위원장 김순옥 사모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45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3:00 중고등부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1130 N. East St, Anaheim, CA92805
 T. (714) 991-9881 /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중/고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 / http://www.visioncc.org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장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도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오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집회: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금요일
 영어예배 오전 10시 오전 5시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민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긴급 기자회견

1월 16일,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한 금식주일 선포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져 매몰한 가축이 이미 1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1월 16일을 금식주일로 선포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역으로 인한 가히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신종플루(인플루엔자 A/H1N1)까지 가세하여 바이러스 피해가 날로 창궐하고 있다”며 “은 교회가 금식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금식헌금을 모아 이웃의 축산농민과 방역종사자를 위문하자”고 금식주일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회장은 “과학적으로 모든 처방을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먼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3, 14), “나에게 돌아오면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겠다”(신 30:10)는 성경구절을 인용했다.

이 대표회장은 또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국민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거둬가신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축산



이광선 대표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농민들과 방역종사자들에 대해 “자식처럼 아끼고 돌보며 키웠던 가축을 살처분과 생매장에 내어주고 가슴 저미는 아픔을 한숨과 눈물로 달래고 있는 축산농민을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엄동설한에 몸을 던져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언제

닥쳐올지 모를 재앙을 두려워하며 가축을 꺼안고 애태우고 있는 축산농민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구제역과 AI 등의 확산 저지와 소멸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축산업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축산농가의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금식주일에는 최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 한국교회희망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도 동참할 계획이다.

(류재광 기자)

“우리 삶에서 십자가 구체화될 때 성령의 열매 맺는다”



2017 기독교세계성령대회 '2011년 신년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2017 기독교세계성령대회(총재 최낙중 목사, 대표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2011년 1월 10일(월) 오전 7시 여의도에 위치한 CCMM 우봉홀에서 교계 인사 및 한국교회 목회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1년 신년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11월 2017기독교세계성

기독교세계성령대회 신년조찬기도회 개최

령대회 조직위축식을 갖고 새해 첫예배로 모인 이번 조찬기도회에서는 오범열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신임대표회장)의 사회로 새해에 임재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2017기독교세

계성령대성회를 위해서 황우여장로, 김영진 장로, 김동엽 목사가 각각 기도하였다.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갈라디아서 5:22-23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란 제하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며 “성령의 열매로, 비단받는 기독교가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재 최낙중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2017년까지 성령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7기독교세계성령대회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

주년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오순절적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평양대부흥운동 110주년이 되는 해인 2017년까지 한국교회 기증선도가 성령 체험으로 한 명 이상 전도하여 천만인을 구령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성령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1년 2월 11일(금)~13일(주) 시드니순복음교회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13개 교회에서 ‘제4차 오세아니아성령대회’, 5월 29일(주) 오후 3시 체조경기장에서 ‘2011서울성령대성회’, 8월 22일(월)~ 9월 3일(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브라질성령대성회’, 10월 중 ‘종교개혁지 순례’에서 2017기독교세계성령대회 심포지엄과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 위기 극복 위해 이슬람 제대로 알아야”

한국신학연구원, 문병길 목사 초청 ‘이슬람 특강’

한국신학연구원(원장 조원길 목사)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 서울 남현동 한국신학연구원 강당에서 ‘이슬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을 알면 이슬람이 보인다’를 주제로 문병길 목사(엘림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문 목사는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 30년간 일했고 이 기간 동안 ‘종교문화’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등을 연구했다.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슬람의 실체와 흐름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기독교와 가장 적대적인 이슬람을 바로 알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됐다. 세속화로 인한 기독교 진리의 훼손을 막고 복음전도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라도 이슬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게 강사인 문 목사의 설명이다.

이번 ‘이슬람 특강’은 ▲이 시대 왜 이슬람인가 ▲무함마드는 최후의 예언자? ▲이슬람의 6가지 믿음 ▲이슬람의 5가지 실천의무 ▲이슬람의 역동성 ▲꾸란 속의 예수는 무슬림 ▲성경 속의 예수는 하나님(삼위일체) ▲아브라함의 적자와 서자의 논쟁 ▲이슬람과 신 국제질서 ▲‘관용과 조화’의 지혜 등 이슬람의 실체와 구체적 교리 등



문병길 박사가 ‘이슬람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을 알 수 있는 실제적 강좌들로 구성됐다.

문 목사는 “이 시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확실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곧 이단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그 대표적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슬람의 무함마드요, 이것이 또한 분명한 이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 목사는 “이슬람을 알아야 세계질서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문 목사는 과거 냉전시대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국가의 싸움이었다면 21세기는 두 거대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 냉전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문 목사 “무조건 타종교를 배척하는 과격근본주의는 배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민족정신인 ‘관용과 조화’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타종교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자동차! 도네이션

남加州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임상철 목사 첫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

후원자 : 임상철 목사(남加州리디머교회 부교역자) 수혜자 : 문형미 전도사(나성순복음교회)

지난달 26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 아름다운 동역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은퇴하면서 소위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실제로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그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저 없이도 잘 돼야죠”

인터뷰

이동원 목사의 은퇴, 그리고 그 이후

-지구촌교회 개척 초기부터 조기 '무소유' 은퇴를 생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개척 7년쯤 뒤였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쏟아져 왔어요. 분당과 수지로 성전을 늘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교회 본질이 뭐냐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일부도 끝없는 숫자 확장, 성장주의가 우리의 나아갈 바인지는 '좋은 의미'의 우려를 하셨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동원 목사 왕국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에게는 좋은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질적 성숙을 유지하는 길을 찾다 '셀 교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소그룹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셀이 살아있고 셀 지도자들이 담임목사와 동일한 목회적 부담과 열정을 갖고 소그룹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돼야 성장주의의 위험을 극복하고 질적 성숙을 꾀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또 하나, 이동원 목사 개인의 왕국이 확장될 우려를 극복하려면 우선 지도자인 제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이곳이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저 없이도 교회가 계속 잘 돼야겠고, 그러기 위해선 꼭 70세를 다 채울 필요 없이 65세에 은퇴하고 이후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리더가 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위 '은퇴비'나 '주택'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이에요.

목사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걸 누린다는 거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저만 위해 일했다는 그런 간증을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 두고 나가면 그것만

으로도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섬겼다는 간증을 할 수 있겠다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발표했어요. 그 약속을 지킨 거죠.”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신데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목회자 정년도 고려화 시대에 맞게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이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처럼 다른 목사님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전 이민목회를 해서 서구 문화나 사교방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은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retirement) 바뀌를 갈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65세 전후로 은퇴해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오래 하는 거지(웃음).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면서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새 일을 찾아요. 70세가 돼도 어차피 그만뒀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때 새 일을 만들기엔 조금 늦을 수 있으니 조금 일찍 은퇴해서 나이에 걸맞는 일을 찾아 일찍 안정시키면 좀더 오래 일하고 그 일도 잘 굴러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는 또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은퇴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 보다 무게를 두셨군요. 그렇다면 새 사역은 정해지셨습니까.

“이미 시작했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 왔던 일들 중에 외부로 돌던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새로 오신 담임목사님은 내부 일에만 집중하시고, 교회가 외부적으로 도왔던 일들을 맡아 발전시키려고요. 예를 들어 매년 했던 셀 컨퍼런스는 셀을 하는 다른 교회들을 돕는 사역이거든요. 그런 일들과 중보기도 사역처럼 지구촌교회를 기초로 외부로 돌

던 사역들을 은퇴 후 하려고 준비해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 후배 리더들과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2년 전 가평에 필그림하우스를 지었죠. 아주 없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엔 목회도 하면서 바쁘게 해 왔던 외부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좀더 발전시켜서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는 일들이죠.”

-목사님의 은퇴 후 새로운 사역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구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이동원 목사는 후임 인재혁 목사에 대해 “같이 일해봐서 서로 잘 알며, 똑똑하고 담대하고 당찬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대웅 기자

(GMN)를 출범시키셨는데,故 목회자 이동원 목사가 시작하신 국제제자훈련원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해요. 국제제자훈련원은 하나에 집중했지만, 저는 성격이 '한 우물 파기' 보단 다양하게 새로운 사역들을 실험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장 사역의 문을 연 새생명센터나 전도폭발, 유학생운동인 코스타 등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하는 사역들이 많았어요.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서(웃음) 새로운 사역들을 잘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역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리더십과 설교훈련,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영성훈련과 셀 사역이죠. 이것이 GMN이 해 나갈 사역입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

회, 셀을 동역하는 교회 등을 1차적으로 돕고, 그밖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목사님들도 가까이 돕겠습니다.”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의 아름다운 동역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습니까. 사실 장기판에서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는 법인데요.

“될 수 있으면 훈수를 안 뒀어요(웃음). 저희는 좋은 모본을 만들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진 목사님도 그걸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의 아름다운 동역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셨습니까. 사실 장기판에서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는 법인데요.”

“될 수 있으면 훈수를 안 뒀어요(웃음). 저희는 좋은 모본을 만들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진 목사님도 그걸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원로와 후임이 서로 경계하고 긴장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동역의 모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일을 완전히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원로는 원로 입장에서 후임을 돕고 후임은 원로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자기 사역을 해 나가는 패턴이에요.

교인들도 그걸 원했습니다. 완전히 떠나지는 말고, 일단 3년간의 멘토링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3년간은 설교도 자주 합니다. 대신 행정 책임은 담임목사님이 100% 진행하고, 저는 설교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할 겁니다.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한 자문이 아니라면 교회에선 할 일이 없을 거라 봐요. 그때가 되면 저는 또 제 일에 바빠져 있겠죠.”

-할렐루야교회도 그랬지만, 이민 교회 목회자를 후임으로 맞으셨습니까.

“김상복 목사님(할렐루야교회 원로)과 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이민 목회를 했고, 워싱턴이라는 같은 지역에 있어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민 교회의 애환이나 강점, 약점을 잘 알죠. 저는 원로와 후임이 문화적 코드나 목회 철학, 스타일 등이 비슷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공교롭게도 두 교회 후임 분들이 서로 친하십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역하면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민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많이 도왔으니, 이젠 거기 리더들이 한국을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국제화에요. 이 두 분은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자유로운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다변하고 국제화하는 일에 좋은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와서 국제적인 컨퍼런스 등을 하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조용기·김정환 목사님 등 몇몇 분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추대 예배에서 담임목사님께 전해주시 사역 매뉴얼이 9권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히는 안 되고요, 지구촌교회 모든 사역과 행사들을 매뉴얼화 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청년회 시절 회지를 발간하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창간호였어요(웃음).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옛날 것이 없어져버리고 했는지 참조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가한 다음 아이디어를 내서 새 것을 첨부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생각하고 3

년간 만들었습니다. 진 목사님도 매뉴얼 보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 모두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첫 설교에서 '거룩한 불만'을 말씀하셨는데요, 끝으로 목사님의 현재 '거룩한 불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지구촌교회가 333비전을 이뤘으니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 비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 숫자적 목표보다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불만을 갖자'는 얘기였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은퇴한 사람인데 지나친 의욕으로 너무 과대한 활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 교회 협동목사 중 '하프타임(half-time) 운동'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은 젊은 날에 성공을 추구했다면, 하프타임 이후에는 성공보다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질적인 의미를 찾으라.

저 자신에게 가진 가장 '거룩한 불만'은 목회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교제 못 갖지 못하고 했으니, 저 자신 내면의 깊은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야겠다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위해 아내와 가족들이 많이 희생했는데, 의미있는 대화나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도 행복감을 주고 싶다는 게 내적인 불만입니다.

외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도울 일이 뭘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담임목사와 다른 차원에서 조용히 섬길 수 있는 일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을 통해 더 깊은 리더십과 질적으로 성숙한 설교, 깊이 있는 기도를 하도록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후배들을 도우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장점이 '교파를 초월한 좋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러한 네트워크 아래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류재광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OPEN 7DAYS A WEEK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진유철 칼럼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뒤로 하고 이제 희망찬 201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조국에서나 이민지에서나 한 국민의 가슴속에는 '잘 살아 보세'의 경제적 부흥의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

부가 증대하는 것을 체험했지만 동시에 빈부 격차가 늘어났고, 이 불평등으로 날마다 갈등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안정을 찾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염려하기 시작했

용위기는 시장과 경제의 기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경제적 집착이 불러온 다른 부작용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롬12:2)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물질과 세상에 대한 집착의 고리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과 주부, 하나님을 순종하는 전문인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진정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를 뛰어 넘는 변화

던 세월을 보내었기에 경제적 관심과 추구, 집착이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서 조국 대한민국도 수출 세계 7위, 경제규모 세계 13위의 경제 상위권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 이민자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졌고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집착과 성공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고 정의와 불평등, 공공선과 시민으로서의 의무 등에 대해 열망과 허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한 복판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시장지상주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선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바로 시장이고 경제라고 여겼는데 금

김지성 칼럼



김 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시간경영

벤저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그것도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무 속으로 빠지게 되고 무질서 속에 처박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시간은 독특한 자원이다. 아무리 시간의 수요가 높아지더라도 공급이 계속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모두 소모될 것이고 계속 저장할 수 없다. 어떠한 것도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시간은 삶의 기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시간의 속도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대는 지식정보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세기를 가리켜 자본주의를 넘어선 뇌본주의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정보에 어두우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시간'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1초의 시간 차이에도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시간에 밀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1초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1초는 아닙니다. 사람은 기껏 1초에 몇 발짝밖에 못 뛰지만 빛은 1초에 지구 둘레를 일곱 바퀴 반이나 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토끼는 식사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호랑이는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식사하지만 토끼는 약한 탓에 식사 시간에도 항상 긴장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1초와 토끼의 1초는 양에서는 같은 시간이지만 질이 다른 것이다. 시간 관리는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들만이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시간 활용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지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 쓰십시오.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사람을 섬겨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경영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순호 칼럼



현 순 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지역 한인교회 총무

복과 도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가 신년 초부터 시작되면 음력 설 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그 많은 말 중에 왜 복 받으라고 할까? 단군의 후손들은 복에 굶주렸기 때문이다. 강대국 틈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며 편안한 날이 없는 한편 권력자들의 부패로 지친 백성들은 팔자소관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언젠가 복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밥그릇이나 수저, 옷 그리고 대문에 까지 복자를 붙이다 못해 베게에도 붙였을까. 영국의 한 여론 조사기관에서 54개국을 상대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생각 외로 방글라데시

가 5위에 오르고 미국과 한국이 23위 필리핀이 44위 일본이 46위였다. 그 조사의 결론은 행복지수는 주관적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더 있다고 하면서 '첫째는 쾌락과 만족이고 두 번째는 자유와 책임임 셋째는 철학자로 사는 길이다'라고 한 말이 그 나름의 이론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다른 신념을 가졌는데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본인은 물론 그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고 그 집의 농사와 가족이 번성하고 어디를 가나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다.(참고 신28장)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더 고차원의 복을 가르쳐 주셨다. 물질적인 부요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부요는 그런 사람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령이 가난 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지 것이요, 온유한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지 것이요" 등을 말씀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고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다. 영어의 blessing은 blood에서 나왔다. 즉 피가 현재 돌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 이치를 알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결심 그 자체가 도전이다.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해에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 일이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못 할 일이 없다. 김00은 담배가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자라는 애들에게 크다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천번 만번 들으면 서도 끊지 못하고 있던 중 어떤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7살 난 아들이 기침을 뽀시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담배 때문이 아닌가 해서 의사에게 예약을 해 놓고는 설날 새벽 12시 교회의 십자가 앞에서 담배를 끊기로 서약을 하고 지키는 도중에 여러번 유혹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연말 까지 잘 해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닥터살롬칼럼



살롬 김 박사
美 웨퍼드대학교

크로스 코드 <5>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34)

▶ 사형수의 공포

“세번째 사형수는 56세였다. 생명보험을 들은 후에 아내와 네 아이들을 불태워 죽인 것이 발각되어 사형 언도를 받은 이였다. 그의 종교는 불교였고,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등의 불경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업보를 씻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좋은 업보를 쌓으려는 것일까? 수감생활 동안 그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영치금이 들어오면 남들을 위하여 쓰고, 흉악범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 화도 내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의 성자로 불렸다.

그런 그에게도 사형집행날이 왔다. 그의 죽음은 어땠을까? 집행장에 오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다리가 풀어져 걷지 못함으로, 교도관들에 의하여 끌려나오고 있었다. 마침내 앞에 있는 밧줄을 보는 순간 자율신경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이 선행을 베풀

어준 누구도, 선행을 본 소장이 이 죽음에 대하여 어찌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죽음의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교도관들과 소장을 욕하면서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떨고 있었다.

소장이 사형 집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자 이름을 말하였을 뿐, 본적을 묻는 순간부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 법에 위배가 되었지만 소장의 직권으로 나머지 절차를 생략하고 사형집행을 시켜야 할 정도였다.

의 베드로, 그리고 시편 109편을 알아야 한다. 이번주는 이들 중 다음 세 가지만 살피기로 한다.

▶ 십자가의 실제 고통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목요일 저녁에 자신이 유월절 마지막 양으로 처참하게 죽음으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이 필요치 않음을 선포하신다.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닌 새로운 성찬의 시작점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그런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밤에 제들과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었다. 이

죄는 땀배에 혹은 뺨을 뺨을 찌르는 찬 바람에 몸을 떠다. 고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피냄새를 맡은 주변의 재미때들은 온 몸을 기어 다니며 상처 속으로 들어간다. 또한 까마귀들이 머리 위를 선회하면서, 때로 머리나 어깨 위에 앉아서 살을 파먹는다. 그뿐인가,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살을 먹는다.

이런 상황이기에 때문에 많은 죄인들은 오직 죽을 시간이 단축되기를 소원하면서, 고통에 찬 비

▶ 첫 말씀의 첫 단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그리스어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강조하려는 말을 맨 먼저 쓴다는 것이다. 십자가 절연의 첫 말씀의 원어 순서를 보면 “파테르 아페스, 즉, “아버지여, 용서하소서”이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 첫 마디에 대하여 먼저 살필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다. 이 첫 마디는 뉘그러가 아니었다. 아픔에 대한 호소나 절규도 아니고, 수치에 대한 모멸감과 분노와 복수를 위한 저주도 아니었고, 기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다. 이것은 십자가형의 고통과 수치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주님은 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였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십자가는 그저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두번째 암호 해독 포인트는 왜 이 기도를 드렸는가이다. 이 답은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건 정황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판을 하셨다. 에덴에서의 추방, 노아의 홍수를 통한 당시 인류의 말살, 언어의 흠오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

필 수 있다. 이 징벌적 심판들은 모두 인간들의 심각한 죄악에 근거한다. 엄청난 죄악이 있었고, 그 죄악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알아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인간이 한 최대의 악한 행동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악하지 않았다. 사탄도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직접적으로 죽인다. 인간은 이런 면에서 사탄보다 더 사악한 존재가 되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과 인간의 공역이었지만, 인간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인간의 사악한 타락을 변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한 죄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글을 교도관 박효진 장로님의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사형수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옥과 저주를 내뱉는 것과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조하여 보아야 한다. 그런 최악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 어찌 이런 기도할 수 있고, 어찌 용서할 수 있는지, 그 경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악스러운 심판을 면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1언의 암호 (1/3)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묻자 그가 남긴 말은 얼굴이 뒤틀린 채 말한 ‘개새끼들이었다.’

위에 살핀 이야기는 잘 알려진 교도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일부이다. 이 간증은 사형수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잘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7언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시한다. 왜 그럴까?

▶ 암호 해독 포인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살피려면 몇 가지 암호 해독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 그 포인트들은 사형수가 경험하는 사형의 공포와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실제 고통에 대하여 알아야 제대로 해독할 수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첫 단어의 의미와, 이 말씀이 기도적 간구라는 사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용서의 관점과 더불어 창세기의 가인과 복음서

후 제사장 가야바에게 밤새 심문을 당하였고,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 심문을 받으셨다. 또한 빌라도를 통하여 심한 희롱과 체찍질을 당하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언덕까지 지고 가셔야 했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박힌 채 세워짐으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시간은 현대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실제 고통의 흔적에 대하여는 저자의 다른 책 크로스 시크릿(오단 출판사 2009)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고통 자체가 너무 크기에 다른 것들은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한다. 또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신을 죽게 한 사건을 원통해 하면서,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한 모든 이들을 저주하고 증오한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내리

명과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붓게 된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이틀에서 삼일간을, 혹은 거의 일주일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천천히 죽어갔다. 또한 십자가형의 효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음으로써 처참한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발가벗겨져 수치감이 최고치이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수치감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형은 형틀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고문이었다.

밤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과 저주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가장 천천히 죽이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고통을 오래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다. 그러므로 로마는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반역자가 당하는 고통을 빼에 사무치게 알게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 보아야 한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지금 대학교 4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난 너무 좋다. 그런데,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아들, 언제 학교로 돌아가나?”고 나는 버릇처럼 묻기 시작한다. 또

학년짜리 딸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힘에 부쳐 싱싱하게 놀아주지 못해 걱정이고, 내후년에 대학 갈 아들은 아침마다 여드름 때문에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에 신

스타일도 자기 나름대로 다 있다. 그런데, 생일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나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서 선물한다. 자기 같으면 입지도 않을 옷을 동생이 좋아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아들이 방학기간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보고 싶다. 대학을 졸업한 딸 생각하면 벌써 시집보낼 생각이 들다가, “그냥 시집보내면 억울하지”하며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한다. 아직도 한창인 초등학교 2

경 쓰지만, 제발 팬츠 속옷 안보이게 옷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부모에게 나왔지만 어찌 그리 서로 다르지 어리둥절하다.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성격도 대조적이다. 취미도 다르고, 옷 입는

니간 사준다. 큰 놈은 역시 큰 놈이야 할 정도로 동생들을 쟁기고, 막내는 받기만 해도 자기가 제일 잘 난 양을 담당하다. 목사 장로의 자격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있다. 요즘이 말처럼 더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이 없다. 가정

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닮은 것이 세상에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자녀들을 돌보며 가듯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돌보고, 자녀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추어주고 사랑하는 교회에 정말 딱 쌍둥이 같다.

에덴동산은 가정과 교회의 본이다. 지상 낙원임과 동시에 죄가 들어와 실락원이 된 아담과 예수님 때문에 복락원하는 과정이 그대로 가정과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에덴과 에덴동편이 공존하는

곳이다. 낙원이 있고, 죄가 있고, 인간관계의 사랑과 갈등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징계와 용서가 있고, 아픔도 있지만 소망과 행복이 있다. 부부싸움이 있고, 자식 간의 반목도 있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한 땀 흘림이 있고, 가족 옷을 입는 따뜻함도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있다. 가정의 기쁨이 교회의 행복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가정의 활력소가 되는 2011년! 복락원의 길잡이로 유일무이하게 지상에 남겨두신 교회로 인해 소망 찬 2011년을 꿈꾼다

Advertisement for 'Hair Color Specialist' (헤어칼라 전문점) featuring various hair color products and pricing. Includes text like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and 'mystylist HAIR SKIN'.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시카고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 턱의 턱관절 * 턱의 턱관절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도발 없이 씹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전문제 임플란트 전문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보철 시카고의 최고 보철 시카고의 최고 보철 시카고의 최고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른기금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보철환영: PPO, HMOA
치주치료 • TMJ (턱관절장애, 소음증)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애주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점,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상점 및 그라자용 마켓용 창고용 Pallet Rack
Bottless Shelving Gondolas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스트,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MR 박은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튼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213-327-9929**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820-3504

결혼꽃 전문 기니꽃집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월 17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의 새해 선물!

내 친구들 다 모여라~ 아이패드도 보인다!

친구 7명 추천하면 iPad 16Gb Wi-Fi + 1년 무료
친구 6명 추천하면 iPod 4th Generation 32Gb + 1년 무료
친구 5명 추천하면 Exxon Mobil Gas Certificate(주유상품권) \$100 + 1년 무료
친구 4명 추천하면 1년 무료 | 친구 3명 추천하면 6개월 무료
친구 2명 추천하면 3개월 무료 | 친구 1명 추천하면 1개월 무료

글로벌 플랜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자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24.99 /월 TAX 포함

글로벌 플랜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34.99 /월 TAX 포함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아이토크 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친구 추천하세요!

1.800.872.2902

http://www.Korea.iTalkBB.com

[디지털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 친구 추천 프로모션은 피추천인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1년 계약 신규 가입에 한하며, 무제한 플랜은 제외 됩니다. 친구 추천을 1명 하신 경우는 추천인과 피추천인 중 낮은 플랜으로 1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216** (동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2011년 **신년**특별 세일



2010년 지난 한 해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1년 토끼띠 한해도 더욱 고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판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임직원 일동



2011 완전 새로워진
쏘나타



\$199

(PLUS TAX, 3YR LEASE, TDO \$2,399, 12K MILE/YR, VIN # 139449)

2010 중소형 세단
엘란트라



\$14,034

(INCLUDE DEALER D/C, HMA REBATE 1,500, HMF BONUS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10 HYUNDAI ELANTRA
RED STK P975481 \$13,999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1,699



2007 HYUNDAI AZERA
BLACK STK P185167 \$15,999



2009 HYUNDAI GENESIS
BLUE STK P029231 \$28,990



2010 HYUNDAI SONATA
TAN STK P591753 \$13,999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9 ACURA TSX GRAY #196587A
- ▶ 2007 BMW 328XI BLACK #PP31167
- ▶ 2006 BUIC LUCERNE RED #121938A
- ▶ 2007 HUMMER H3 YELLOW #P126552
- ▶ 2008 HYUNDAI AZERA BLACK #P332058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9231
- ▶ 2009 HYUNDAI GENESIS GRAY #P046436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767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532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P270753
- ▶ 2010 HYUNDAI SANTA FE RED #P343949
- ▶ 2010 HYUNDAI SONATA COCOA #P601361
- ▶ 2010 HYUNDAI SONATA WHITE #P598307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P057661
- ▶ 2009 KIA SEDONA GRAY #P296190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오터문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한국어 상담
제니 김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